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무임승차하려는 아전은 내리쳐야

아직도 그날의 감동이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상적 만남으로 인한 진한 여운이 말이다. 그야말로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였다. 그 어떤 연출가도 이처럼 멋진 각본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많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6.25전쟁 이후 1953년부터 65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정전 협정을 금년 내에 종전 선언으로 바꾼다는 것이 우선 그렇다.

다가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이산가족이 만난다는 것도 참으로 만족스러운 사항이다.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단계적 군축 실현, 서해의 화약고라는 북방한계선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한 것,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또한 그렇다.

특히 군사적 긴장해소로 평화지대가 되면 '코리아 브랜드'의 국가신인도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던 자본도 들어올 것이고 안정된 가운데서 양질의 물건들을 생산하면 수출도 잘 될 거라 믿는다. 마치 요순시대의 태평성대가 이뤄질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든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다.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런 기대감에 잠겨 있다. 그리고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극히 일부의 사시적인 인간들만 제외하고는. 이런 일부 족속들은 참으로 희한하다. 능력도 없어 보이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들.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으로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다. 극히 일부의 모순된 사고를 가진 자들의 난동이 있더라도 그것은 찻잔 속의 미풍도 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호응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또한 다음 총선 때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그들은 자신들만의 착각 속에서 환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조그만 종기라 생각한다. 이제 머잖아 지방선거다.

이번의 드라마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그럴 것이다.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인물 됨됨이를 잘 봐야 한다. 원님 덕분에 나팔 부는 사람이 뽑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선거운동을 할 것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뽑지 말아야 된다. 자신의 능력은 생각 않고 어부지리하려는 생각부터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본란에서도 무수히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하고 있다. 순한 눈망울부터가 거짓말 자체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지역 출신 인사들도 많이 등용해줬다.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자신이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그리고 지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활약상을 기대하고 있다. 참으로 성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런데 문제는 아전들이다. 대통령의 치적으로 무임승차하려는 이상한 족속들 말이다. 이런 자들만은 확실하게 골라내야 한다.

잘못하면 아전들이 북치고 장구쳐버리기 때문이다. 대통령 치적에 누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견제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 전향적인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민심을 이반하는 독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은가.

社 說

산불예방에 국민 동참해야

산림청이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니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연휴에 가족 단위 여행이나 등산 단체 행사 등 야외활동 인구가 늘고, 산나물·산 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 인원을 늘려 등산로 입구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서 계도·단속활동을 벌인다.

최근 10년간 5월 산불의 주원인은 입산자 실화였다. 입산자 실화가 79건(68%), 소각산불 16건(14%), 담뱃불 6건(5%) 등이었다. 산 중턱에서 산불이 나면 조기발견이 어렵고 진화도 어려운 만큼 단속 인원을 늘리는 등 특별관리해 사전에 방비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지역에는 단속반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하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때 산불예방 교육을 한다.

산나물·산 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등산로와 입산이 통제된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무단입산에 대한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산림 사법감시단을 운영하고, 드론감시단과 공무원 기동단속반도 함께 운영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는 산림 헬기 3대와 유관기관 진화헬기 6대를 전진배치한다. 봄에는 마른 낙엽과 건초 등 연소물질이 많아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산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산에서 흡연 등 불을 피우는 행위를 일절 금해야 하며 산불예방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기 고

김 구 현 나주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경보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것이고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각 세대나 층별 1개 이상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장소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로 화재 발생률이 높지 않지만, 화재 사망자중 70%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구비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피난을 하거나 초기 진화만 잘해도 큰 사로고 이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해 우리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화재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하면 작동을 하는 구조로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 혹은 시험버튼이 있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건전지 수명을 점검해 주어야 한다.

소화기는 보통 10년 사용할 수 있다 압력계가 녹색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범위이며 간단히 위아래로 뒤집어 약제의 경화를 방지하면 된다.

분말소화기는 약제 특성상 오래 가만히 두면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에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비치해 안전을 선물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忠	충성	충
則	법칙	칙
盡	다할	진
命	목숨	명

忠則盡命

▷뜻: 충성(忠誠)함에는 곧 목숨을 다하니 임금을 섬기는 데 몸을 사양(辭讓)해서는 안됨.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